



# 축산정보



## 배합사료 평균 4~6% 인상

곡물가·물류비 상승 등 요인... 올들어 세번째 단행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단행되어 FTA, 소모성 질병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가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업체들은 9월에 양돈사료 값 인상을 고지하고, 5% 정도 인상 적용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가격을 보면 걸프 기준 89달러로 사료 값을 인상했던 지난 6월 67.3달러에 비해 32.2%가 났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업체들은 물류비 상승에다 국제 곡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의 불안정 등으로 도저히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업체별로 사정에 따라 평균 4~6%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들어 3번째 인상으로 지난해 11월 인상까지 포함하면 모두 4차례 인상이다.

문제는 이번 사료 가격 인상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12월이나 내년 1월에 또 다시 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는 옥수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박운임이 오른데다 대두박이 급등하고 있다며 올 대두박을 이용할 때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두박 가격은 C&F(운임을 포함한 가격) 기준 톤당 351달러로 일년전 249달러에 견줘 41%, 연초 289달러대비 21.5%가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대두박 가격이 오른 것은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이 콩 대신 옥수수를 심어 수확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돈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소모성 질환 등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 사상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한 돼지고기 자급률 하락 등 대내외로부터 겪고 있는 양돈 농가의 고통을 사료업계가 함께 나누고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

## “검사대상 후보돈수 축소 안돼”

농림부, ‘중돈장 방역요령’ 중돈업계 의견수용 불가

가축전염병 검사 대상 후보돈수 를 조정해달라는 중돈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림부는 중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검토,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는 검사대상 후보모돈수를 모든 10두당 1두로 하거나 ‘3%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모돈의 범위가 80~1백10kg이 돼야한다는 한국중돈업경영인회의의 요구에 대해서도 검사대상 두수가 현수준 보다 축소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돈장들은 당초 개정안대로 후보모돈 선발·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염병 검사를 받게 됐다. 후보모돈의 범위는 30~1백10kg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중돈장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시·도 방역기관장이 검사 계획과 함께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용키로 했다. 검사용 시료에 PRRS 검사용 정액을 추가, 시센터에서 생산되는 정액에 대해 PRRS검사를 시행토록 해야한다는 검역원의 의견도 받아들여졌다.

## 돼지 도축두수 증가세

돼지 도축두수 증가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7월 돼지 도축두수는 105만9천486두로 전월 105만478두보다 0.9%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91만2천35두보다 16.2% 크게 늘었다.

또한 올해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7월까지의 총 도축두수는 778만8천454두로 지난해 누계 727만5

천347두보다 7.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돈육 수입량 다시 증가

총 수입량, 전년대비 87% 비중

돼지고기 수입량이 6월과 7월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8월 한 달 동안 수입된 돼지고기는 총 1만7천385톤으로 전월 1만6천41톤보다 8.4% 증가했다. 아울러 8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 총량 또한 18만3천53톤으로 지난해 총 수입량 21만톤의 87% 비중을 차지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삼겹살 수입량은 8월 현재까지 8만6천739톤을 기록, 전체 수입량의 약 50% 비중을 차지했다. 국별로는 미국산이 총 5만2천915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어 칠레산은 2만2천28톤이 수입되어 약 12%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캐나다산은 1만9천898톤, 프랑스산은 1만6천114톤, 벨기에산 1만2천968톤이 수입됐으며, 오스트리아 9천813톤, 네덜란드 9천292톤, 스페인 9천180톤, 덴마크 9천129톤, 폴란드 8천720톤, 헝가리 7천838톤이 각각 수입됐다.

## 미국산 쇠고기서 갈비뼈 발견

전량 반송조치… 해당 작업장 승인 취소키로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가 발견됐다고 지난 9월 4일 발표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7월 29일 선적돼 부산항에서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5.5톤(1천300상자)을 검역한 결과, 1상자(17.9Kg)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지난 9월 4일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쇠고기를 도축 가공한 작업장은 지난 7월 31일 갈비뼈가 검출돼 이미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받았던 곳이다. 갈비뼈가 발견된 쇠고기는 중단조치 이틀 전 미국에 선적돼 지난달 1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갈비뼈가 다시 발견됨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8월 24일 검역중단조치 해제 발표시 미국측에 통보한 대로 당해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 조치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 수입검역중단 조치 이후 검역 대기중인 쇠고기 6천832톤 가운데 검역이 재개된 이후 8월말까지 2천514톤이 검역이 끝났고 나머지는 검역을 실시 중에 있다.

## 줄지 않는 'PED'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PED(유행성설사병)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PED 또한 3건, 700두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까지 PED는 총 29건, 1만1천772두에서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 6천968두보다 발생두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총 발생두수 1만258두를 초과하여 양돈농가의 돼지 유행성설사병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오제스키병은 경남지역에서 3두 발생하는 것에 그쳤다.

## 올 종돈수입 예상량 크게 밀릴 듯

MMA 3천두로 증량 불가 2천두대 도입 전망

올해 종돈수입이 당초 예상량을 크게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종돈수입은 미국산 70두, 기타 30두 등 모두 1백두(22만4천3백3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까지 수입된 종돈은 총 9백82두, 금액으로 1백93만9천7백95달러 규모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백55두(2005년도 연말에 수입, 2006년 통관 프랑스산 종돈 2백55두 제외)와 비교해 21.8%가 감소한 것으로 올해 종돈수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다소 빗나간 결과이다. 이처

럼 종돈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은 농장신축이나 사육규모 확대를 계획했던 일부 대형농장들이 올해 종돈수입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MMA 물량 운용에 여유가 생겼지만 비육농장에 대한 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 돈육 상위등급 출현율 소폭 하락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육질등급 판정결과 지난달 상위등급 출현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웅)에 따르면 지난 8월 1백14만9천33두에 대해 실시한 육질등급 판정에서 0.8%인 9천1백57두가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은 70만3천8백81두로 61.3%의 출현율을 기록, 1등급 이상의 상위등급 출현율은 62.1%인 것으로 집계, 1등급 이상 출현율이 63.3%에 달했던 전월에 비해 1.0%P 하락했다.

## 돼지 1~2등급 가격 차 더 벌어져

돼지 육질등급이 낮아진 가운데 등급별 가격차이가 더 커졌다.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8월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115만마리로 전달 105만3천마리에 비해 9%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육질 1+등급은 0.8%로 전달 0.7%에 견줘 다소 늘었으나 1등급은 61.3%를 차지해 7월 62.6% 대비 1.3%P 낮아졌다. 반면 2등급은 31.4%로 한달전 29.7%에 견줘 1.7%P가 올랐다.

이처럼 1+, 1등급이 감소한 가운데 경락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kg당 경락가격은 1+등급 3천664원, 1등급 3천466원, 2등급 2천828원으로 1+와 1등급 간 198원(5.7%), 1등급과 2등급은 638원(22%)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7월 176원, 596원에 견줘 각각 22원, 42원만 큼씩 가격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한편 규격 등급의 경우 A등급은 35.1%로 7월 35.7%에 비해 0.6%P가 떨어졌으며 B등급은 30.1%로 전달 3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규격 등급 역시

등급별 경락가격 차이가 A·B등급 간 241원(A등급 3천560원, B등급 3천319원)으로 전달 222원 대비 19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돈육 재고량 다시 늘어

7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다시 증가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조사 7월 돼지고기 조사재고량은 4천795톤으로 전월대비 6.5%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재고량을 추정한 결과, 추정량은 2만3천701톤으로 전월대비 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삼겹살과 목등심, 등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등심은 2천231톤으로 전월대비 9.4% 감소하고, 삼겹살과 목등심은 각각 3천147톤, 1천421톤으로 전월대비 7.6%, 17.4%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안심은 568톤으로 전월대비 2.0% 증가했으며, 전지와 후지는 5천66톤, 5천566톤으로 26.5%, 8.4%씩 크게 증가했다. 갈비 부위 또한 4천373톤으로 전월 대비 15.3%, 기타 부위는 1천330톤으로 0.8% 늘었다.

## 지난해 1인당 돈육 소비량 18.1kg

지난해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이 18.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 발표 농림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18.1kg으로 2005년도 17.8kg 보다 0.3kg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7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70년에는 2.6kg로 나타났으나, '80년 6.3kg, '90년 11.8kg으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2000년 16.5kg, 2005년 17.8kg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별로는 미국이 29.3kg, 일본 19.5kg, 호주 21.3kg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6.8kg, 닭고기 소비량은 8.6kg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 갈비도 갈비살 등으로 세분화

식육판매업소, 돼지고기 등급 자율표시 경우 육질등급 표시

앞으로 돼지고기 갈비도 갈비와 갈비살, 마구리 등으로 소분할 부위 명칭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확대하고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경우, 현행 17개 부위에서 흥두개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마구리 5개 소분할 부위명칭이 추가된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육질등급(1+, 1, 2, 3, 등외(E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입안예고를 실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세계 곡물재고율, 올해 말 사상최저 전망

옥수수 수요증가 및 쌀 등 재고량 감소

올해 말 세계 곡물재고율이 15.2%에 불과하여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곡물재고율은 에탄올 수요의 증대에 따른 옥수수 수요 증가와 보리 및 쌀의 재고량 축소가 주요인이 되어 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올해 미국 옥수수 생산량이 3억3천160만톤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고 세계 옥수수 생산량도 7억7천150만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면서, 올해 세계 곡물생산량은 20억9천100만톤으로 5% 증가한 최대물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소비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3% 증가한 21억 톤이 되어, 전체 소비량에 대한 기말재고율이 올해 말 15.2%에 불과,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 '72년~'73년의 15.4%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 돈열 항체 80%미만 농가 증가세

돼지 열병(돈열) 항체 양성률 80%미만 농가가 3개월 사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본부는 지난 9월 5일 8월말 현재 돼지 돈열 항체 양성률 80%미만 농가가 431농가로 5월말 352농가보다 79농가(22.4%)가 늘었다고 밝혔다. 8월말 돈열 발생 건수는 경기 1건(2월), 충남 3건(3월) 등 4농가에서 56마리가 발생했다.

이처럼 돼지 열병 80%미만 양돈농가들이 늘어난 것은 농가들의 예방접종 소홀과 접종 시기 미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돈열 예방을 위해 40일령과 60일령 때 접종해줄 것"을 당부했다.

## 돼지고기 판매처 육질등급 표시

농림부 관련법(안) 예고

부위 명칭 17개서 22개로

돼지고기 판매단계에서 육질등급이 표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11일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 구분방법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변화된 식육 유통 환경을 반영,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부위명칭은 ▲흥두개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마구리 등 5개로 이들 부위의 분할정형기준도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농림부는 돼지 육질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판매 단계에서 돼지 등급을 표시할 때 육질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판매점에서는 기존의 A·B·C·D·E로 표시하던 규격 등급 대신 1+, 1, 2, 3, 등외(E등급)의 육질 등급으로 나타내야 한다.

## 양돈시장 지각변동 하림, (주)선진 인수

사료 2위 농고 CJ와 치열 예상

양돈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하림은 지난 9월 11일 자회사인 농수산홍쇼핑을 통해 선진 지분 102만주(46.4%)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1

천37억원. 이에 따라 브랜드 돼지고기 시장은 물론 사료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진은 돼지고기 브랜드 '크린포크'를 보유, 브랜드 돼지고기 시장의 16%를 점유하는 돼지고기 브랜드 업계의 선두기업. 특히 국내선 처음으로 체계적인 양돈계 열화 사업 모델을 도입해 종돈, 사양, 사료,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사업을 갖춘 회사다. 이에 전국적인 육류 유통망을 갖춘 하림의 돈육 브랜드 사업 참여는 불가피, 돼지고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합사료시장도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기존 제일사료, 제일곡산, 천하제일사료가 하림그룹 계열인 상황에서 선진을 인수함에 따라 생산규모가 크게 증가해 생산 순위 변동도 예상된다. 양돈사료의 경우 천하제일과 선진을 합할 경우 상반기 기준 22만톤으로 퓨리나(30만톤)에 이어 씨제이(22만톤)에 육박해 2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약 부가세 영세율 적용”

동약협회, 재경부 국회에 건의

동물약품협회는 동물용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동물약품협회는 농축산 기자재 가운데 비료, 농약, 사료, 축산업용기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적용 받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며 국회 및 재정경제부를 방문,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물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양축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연간 35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굴욕적 미 쇠고기 협상 결사반대”

한우농가 1만여명 여의도서 쫓겨대회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9월 18일 여의도 문화마당 내에서 한우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우인 총 쫓겨대회'를 열었다.

이번 쫓겨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한우농가 1만여명이 모여 한우농가들의 절실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대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한우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현실에 더 이상을 참을 수 없다”며 “오늘의 쫓겨대회는 정부가 외면한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이 60%로 하향 조정되면서 농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차츰 줄어가던 브루셀라가 음성적으로 더욱 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금 100% 환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축산업 성장가능성 매우 높다”

농협, 축산업 장기발전방향 연구보고회서 강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경우)는 지난 8월 27일 농협 본관에서 '식품수요 변화에 따른 축산업의 발전과 장기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농협사료가 축산업이 식품 수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축산업 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축산경제 임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정경수 교수는 축산관련 산업까지 포함한 2005년 말 축산업 생산액은 약 19조원, 부가가치는 약 12조원이 넘고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39조원이거나 되는 등 축산업은 성장 및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또 2030년에는 축산생산액(15.7조원)이 전체 경종생산액(15조원)을 추월하고 농업생산액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축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가·정부·협동조합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